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감상영역 분석 및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 정 아

지도교수 서영화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감상영역 분석 및 연구

The Analysis and Study on Appreciation Area in
High School Music Textbooks

2012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 정 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감상영역 분석 및 연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 정 아

이정아의 교육학(음악교육전공)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계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한나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서영화

2011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4
II. 음악감상 및 교과서의 감상영역 분석	6
1. 음악 감상 교육	6
2. 통합적 음악 감상 교수 방법	25
3. 고등학교에서 음악 감상의 중요성	29
4.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감상 영역 분석	38
III. 결론 및 제언	65
결론	65
참고문헌	67

표 목 차

<표-1> 현행 고등학교 3종 음악 교과서	5
<표-2> 감상학습의 교수방법 및 유의점	19
<표-3>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감상 영역 비교	36
<표-4> 고등학교 감상활동 영역의 학습 목표	40
<표-5>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이해 활동 영역 비율	41
<표-6> 서양음악 감상곡의 내용과 빈도수	42
<표-7> 한국음악 감상곡의 작곡가 및 빈도수	51
<표-8> 고등학교 교과서 감상곡 분석 태성A	54
<표-9> 고등학교 교과서 감상곡 분석 박영사B	57
<표-10> 고등학교 교과서 감상곡 분석 금성C	60
<표-11>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의 감상곡의 빈도수	62

그림 목 차

<그림-1> CMLS 교수모형	28
------------------------	----

ABSTRACT

The Analysis and Study on Appreciation Area in High School Music Textbooks

Jeong A Lee

Advisor : Prof. Young Hwa Seo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appreciation area in highschool music textbooks and to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The Seventh Curriculum and the contents of the Curriculum Revision were examined and the changes in music textbooks were searched and analyzed accordingly. And the teaching methods appropriate to the Curriculum Revision was researched and included in this paper. The importance of music appreciation area apposite to the case was recognized and the necessity an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described. The conclusions are drawn like these.

First, the frequency of the appreciation area varies every textbook,

thus the essential appreciation part should be equally distributed in each of textbooks. Second, the song to appreciate should be well-balanced based on the songwriters, times, genres, and the various styles of musical performance, which would help students understand music comprehensively and abolish their prejudice against music.

Third, a variety of Korean songs should be included in the curriculum to acknowledge an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Korean music.

Forth, various types of media to appreciate music, such as mp3 , cell-phone and internet, etc, should be used to keep pace with the rapid changes in our world.

Finally, I concluded that the way and guidance of music appreciation should introduced in the formal education curriculum. In addition, the teaching methods suitable for the high school students are included in this thesi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set forth guidelines to recognize some problems in the three kinds of the current music textbook and be helpful for the more improved and systematical music textbook.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발생하여 오면서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음악 교육은 이러한 인류와의 관계를 유지 하면서 음악 문화를 이루고 모든 세대에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미술, 음악, 무용 등을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기도 하는 것. 이것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산물이다. 이 가운데서도 들으면서 감정을 승화시키는 음악 감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가까이 있으며 친숙하기까지 하다.

오늘날 음악 교육은 개개인의 음악성 및 음악의 미적 감수성을 최대한 발달시킴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음악을 통한 자아실현이 가능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음악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음악에 대한 심미적인 감수성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음악 본질의 체험과 음악적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심미적 음악교육을 지향한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음악교육은 음악의 심미적 체험을 통해 인간의 삶의 궁극적 가치를 통찰하고 이해하며, 그것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어야 한다.

현행 제7차 교육 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심미적 체험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음악과 수업은 심미적 감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모든 음악활동에 심미적 체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의 사회 속에서 학교 음악교육은 인간의 심미적 안목과 창조적 표현능력을 최대한 경험하게 하여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또한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명곡들의 깊은 이해를 통해 삶을 관조적으로 보며 즐길 줄 아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 이처럼 음악교육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중에서도 음악 감상교육은 다른 음악 활동에 비해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이다. 사실 학교 뿐 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영역도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음악교과서는 이러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뀔에 따라 음악 교과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음악 교육이 소외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상들은 음악교과가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 적응하지 못한 탓도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생이 공감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학습 자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오늘날의 문화 발달들을 통해서 음악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간편해 지고 다양해진 이 때에 여기에 부합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며 수록곡들의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진 교과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 100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할 발전이 1년도 채 안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학자들은 지식화, 정보화, 신자유주의화로 간다고 말하고 있다. 벌써 우리는 지식과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무한 경쟁 속에서 어느 국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1세기에 맞는 인재는 단순한 기계적인 지식적 인간이 아니라 급변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라야 할 것이다. 수동적 지식의 수요자가 아니라 예리한 관찰력과 통찰력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가려낼 줄 아는 정보의 소비자이며 공급자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모든 분야에 여유를 갖고 관망하며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음악교과도 다양하게 분석해보면 현 시대에 발맞추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고 있다.

20세기 중엽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학교 음악교육에 현대음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미국의 경우 1959년부터 약 15년간에 걸쳐 Ford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으로 공립학교에 젊은 작곡가들(The Young Composer Project, YCP)을 파견하여 현대음악의 창작과 연주, 지도 방법을 실현함으로써 그 당위성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였다.

미국 교육자 협의회(Music Education National Conference, MENC)는 젊은 작곡가 프로젝트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각

학교에서 현대음악에 관한 세미나 등을 개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비 프로그램이 공립학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1963년 ‘음악교육에서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현대음악 프로젝트 (Comtemporary Music Project for Creativity in Education, CMP)¹⁾를 발전시켜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미국의 여러 현대음악 프로젝트는 음악교육개혁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고, 이 결과 실험적, 창의적인 음악수업과 학생들의 음악적 창의성을 계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²⁾

한편 독일에서는 1950년대 초 아도로노(Theoder. W. Adorono)가 전통적인 심미적 감상 태도를 비판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현대음악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후 오르프(Carl Orff)의 지도방법과 새로운 음향매체들은 현대음악 교육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되어 주었다. 특히 1970년대 이후에 독일의 음악교육학자들은 문학, 철학, 사회 그리고 타 예술 및 전자 매체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현대음악교육을 강조함으로써 학교 음악교육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로써 노력은 음악교육에 다양한 정보의 제공, 체험과 합리적 분석 형태를 통한 음악의 이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 또한 많은 음악교육학자들의 현대음악학습에 관한 지도 연구들은 20세기 음악교육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³⁾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제도 7차 교육과정에서 현대음악 제재곡의 사용은 조금 더 빈도가 있어졌고 음악적 폭도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대음악은 실제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음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음악교육자들이 현대음악을 학교에 도입하고자 하는 공통된 기본 의도는 현대작품을 낱게 한 동시대 특유의 삶의 형태가 작품과 학생 간에 존재하는 밀접한 요소이며, 그것을 교육에 이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다. 현대 특유의 삶의 형태가 현대의 관용적 음악 표현법을 낱았으며, 청소년들이 그것에 가장 민감하다는 것이 그러한 인식의 전제가 된다. 이

1) CMP(Comtemporary Music Project for Creativity in Education, 1963-1973): 1962년에 YCP는 포드재단의 10개 주요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MENC에 138만불을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MENC는 이 프로젝트를 ‘음악교육에서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현대음악프로젝트’로 발전시켰다.

2) 민경훈 외, <음악교육학 총론> (학지사, 2010) p.277

3) 민경훈 <현대음악 학습방법연구> (음악이론연구 제4집, 1999) p.292

러한 일반적인 인식은 현대음악이 어떤 형태로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시사한다.⁴⁾

이러한 관전에서 볼 때, 시대, 문화적 상황을 담고 있는 음악은 학생들에게 현재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통로 역할을 해줄 것이며,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현대음악 교육은 창의력의 신장 뿐 만 아니라 미래의 문화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개방적인 사고방식과 새로운 미적 감각 또한 갖게 해준다. 그러므로 이제 현대음악을 생소하고 어려운 음악이라고 배척하기 보다는 과감히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미래 음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음악 감상은 모든 분야에 기본이 되고 이것은 교육을 통하여 학습되고 있으며 발전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감상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교과서적이고 이론적인 면으로만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수업들이 될 수 있도록 교과서의 영역을 넓혀가며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본 논문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현행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를 감상영역 중심으로 비교 분석 하였다. 특히, 감상영역을 여러 방향으로 분석하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목적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모색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논문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음악 감상을 통하여 학생들이 심미적 체험과 음악적인 여러 표현 요소나 악기의 음색과 표현에 이르는 감상 활동에 대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에 관한 연구이다. 개정교육과정의 중점 사항과 내용을 이론적 배경으로 음악 감상 영역을 비교, 분석 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고등학교 3종 교과서와 각각의 분류기호는 다음<표-1>과 같다.

4) 이홍수 <현대음악 작품의 교재화 방안> (음악교육연구 제 17집, 1998)

<표-1> 현행 고등학교 3종 음악 교과서

분류기호	교과서명	출판사명	저자명
A	고등학교 음악	도서출판 태성	주대창, 정은경, 홍수진, 최종철
B	고등학교 음악	(주) 박영사	주광식, 진태식, 채은영
C	고등학교 음악	(주) 금성출판사	양종모, 정태봉, 우광혁, 신현남, 윤성원, 김한순, 독고현

3.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린 감상영역들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음악의 본질적 요소인 구성요소의 특성에 따라 각 영역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징과 성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감상영역을 지도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3종인 태성 출판사, 박영사, 금성출판사의 감상영역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분석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상영역에 있어서 교과서가 제시한 학습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감상활동 영역의 학습 목표를 조사하였다.

둘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 감상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이해영역과 활동 영역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셋째, 각 교과서별로 어떠한 감상 곡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각 교과서간의 편차와 공통점을 알아보기 위해 감상 곡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넷째,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의 감상 곡의 작곡자 및 빈도수를 조사하여 각 교과서 간에 어느 정도의 상호 공통성과 어떠한 기준에 의한 곡들을 수록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다섯째,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의 감상 곡의 빈도수 비율을 조사하였다.

여섯째, 서양음악 감상곡과 한국음악 감상곡이, 분류한 각 시대별로 얼마나 다양한 곡들이 수록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교과서 간의 공통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대별로 비교, 분석, 조사 하였다.

II. 음악감상 및 교과서의 감상영역 분석

1. 음악 감상 교육

가. 음악교육에 있어서 감상의 의미

음악 감상은 그 음악에 주의를 기울여 들으며 사고하는 것을 말한다. 음악을 감상한다는 것은 음악의 미적 특성과 의미를 이해하고 즐기는 행위로서, 이는 음악을 형성하고 있는 음악적 요소들, 즉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 등 모든 음악적 표현 요소에 대한 그 특징과 생성 원리의 구체화된 의미를 지각하고 감응하는 것을 뜻한다.⁵⁾

음악 감상을 통한 음악 요소와 형성 원리의 이해, 작곡가의 의도 파악, 음악적 심상의 형성 등은 감상자로 하여금 모방과 재창조, 즉 적극적인 음악 활동에의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다양한 악곡을 감상함으로써 음악의 표현적 요소와 음 현상에 대한 감지력과 민감한 반응력을 길러 음악적 감수성을 기르게 한다. 음악 듣기를 통해 음악적 감각을 얻고 다양한 음악을 경험하는 것은 음악적 사고력과 상상력, 통찰력, 판단력, 창조성 등의 기초를 마련할 뿐 아니라 다시 이러한 감각과 능력을 바탕으로 보다 폭넓은 음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⁶⁾ 이러한 점에서 음악 감상은 모든 음악 활동의 기초이자 바탕으로 필수 불가결할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드만(Boardman, 1997)은 듣기 활동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음악적 사건에 몰입하여 참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listen(듣는다)' 대신에 'describe(묘사하다, 설명하다)'라는 용어를 사용

5) 이연경, <감상능력 육성을 위한 음악과 학습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15집, 1996) p.52

6) Charles. Leonahard, & House, Rpbert W. 안미자역 <Foundation and Principles of Music Education: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하였다. 이것은 음악을 감상한다고 하는 것이 들려오는 소리를 수동적으로 듣는 활동이 아니라, 들은 것을 서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동적인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⁷⁾

나. 음악교육에 있어 창작의 의미

창작은 음악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활동이다. 어떤 연령의 학생이든 창작을 통하여 음악의 내적 작용을 탐구하고, 음악에 대하여 배운 것을 자신의 작품에 활용해 보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창작을 통하여 모든 학생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음악적 소재를 독창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보다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⁸⁾

음악교육에 있어 창작은 작곡 활동에 국한되는 개념이기 보다는 작곡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과정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모방, 신체적 표현, 즉흥적인 표현, 작곡해 보려는 여러 가지 시도와 체험 등이 포함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 될 수 있다.⁹⁾ 즉, 음악활동과 연관된 학생들의 모든 창의적 시도는 모두 음악적 창작활동의 범주로 포함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습득한 음악적 개념을 활용하고,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학생 자신의 방식으로 악곡을 표현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음악적 창의력은 개발되고 신장 될 수 있다. 특히 학교 수업에서의 즉흥적인 창조 활동이나 작곡 활동은 창작 활동 그 자체로써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학생 스스로 그 활동을 거침으로써 음악적 개념을 쉽게 습득하고 이해하게 된다.¹⁰⁾

창작은 자기를 구현하고, 형성된 음악의 요소 개념과 생성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음악적 개념의 확대를 꾀하며, 창작의 능력을 향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음악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스스로 학습한 개념과 원리에 창의적인 음악적 아이디어를 결합시켜 표

7) 석문주 <교실에서의 음악감상> (교육과학사 1999) p.10

8) 석문주 외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학지사 2010) p.197

9) 장창환 외 <초등음악과 지도법> (삼호출판사 1977) p.159

10) 석문주 외 전개서(학지사 2010) p.198

11) 이흥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출판사 1990) p.199

현해 낸다고 할 때, 그것은 음악활동의 최종적 목표이며 음악교육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음악 감상과 창작의 관계

감상과 창작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창작은 감사의 기초적인 활동이 되며, 감상 역시 풍부한 창작 활동을 위해서 좋은 경험이 되어 준다. 또한 풍부한 창작 활동의 경험을 거치며 보다 수준 높은 감상이 가능하게 된다. 음악 감상은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성을 길러주는 창작활동의 기반이 되는 활동이다. 음악 감상의 기회가 많아질수록 학생은 음악적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그로 인해 음악적인 표현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은 창작 욕구를 느끼게 되고 창작과 감사의 반복을 통해 학생은 더 깊이 있는 음악성과 음악적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감상과 창작의 연계학습은 창작활동이 갖는 특성상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으로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다. 수동적인 음악 듣기 활동으로 그칠 수 있는 음악학습은 창작과 연계접근을 통해서 음악 감상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도 음악에 대한 집중을 높임으로써 음악적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높여 주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창작은 음악 학습에 대한 학생의 '주인의식(sence of ownership)'을 높임으로써 학생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¹²⁾

라. 음악 감상의 정의

음악 감상이란 음악에 대한 애호심을 기르는 동시에 그것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감각적 정신적 수용 활동을 통하여 악곡의 음악 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음악 창조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마음 곳에 내재된 인간성을 발견하려는 활동이다.”¹³⁾고 정의 할 수 있다.

12) 방금주, 김용희 <음악 창작 아카데미> (학문사, 2000) p.15

음악을 감상한다는 것은 아무런 매개 없이 직접 경험을 통해 작품을 음미하는 활동으로 진정한 감상력의 신장은 결국 음악을 이해하는 것이며, 이 과정을 거치면서 미적 체험을 가능케 한다. 또한 J. L. Mursell은 “듣는다(hear)와 청취한다(listen)를 구별하고 있다.” 즉, 듣는다는 것은 ‘외적요소’에 대한 분석적인 반응하는 일이며, 청취한다는 것은 ‘내적 요소에 대한 분석적인 반응’임을 밝히고 있다.¹⁴⁾ 학교에서 감상 교육은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청취하여 음악의 실체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감상자는 음악과 대등한 위치에서 작품의 구조와 실체, 작곡가의 의도와 연주자의 표현 의도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면서 음악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으로, 감상 능력은 소질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성장하여 가는 것이므로 감상에 의해서 음악을 듣는 힘을 개발하고, 다시 훈련에 의하여 감상 능력을 늘리게 된다.¹⁵⁾

인간은 노래하고 연주하며 창작하고 듣는 즉, 감상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간이 지닌 근본적인 능력이 교육을 통하여 개발 육성되고 정신을 순화시킴으로써 조화롭고 운치 있는 생활은 물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음악 감상이란, 심미적 특성이나 가치를 음미하고 이해하며 음악을 즐기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음악작품을 음미하고 거기서 미적인 내용을 즐기며 이해하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음악 감상은 연주, 창작 등과 같이 음악 학습활동에서 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교육의 모든 부분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음악 감상은 단순히 청취활동이 아니고 훨씬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¹⁶⁾

또한 J. Dewey는 경험을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으로 나누고 예술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경험으로서 아무런 매개적인 것이 없이 경험 될 수 있는 것을 ‘감상’이라 하였다.¹⁷⁾ 이런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13) 이용일. 음악교육학개설, (서울 : 현대출판사,1992), p.218

14) 김병주. “음악 감상을 통한 음악적 태도 및 창의성 개발에 관한 실험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1995 p.6

15) 안기옥. “베에토벤 음악을 통한 음악 감상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1997 p.24

16) 유덕희. “음악교수법” (서울 : 정음사 1976) p.193

17) 유신. 음악감상론 (서울 : 삼호 출판사,1998) p.5

음악 감상은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종합적 사고가 가능한 영역이다.

음악 감상은 음악적인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마련해보고 풍부한 감상능력을 길러 보다 아름답고 새로운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하여 나아가 인간성을 높이고 정서를 윤택하게 해주며, 감상을 하는 가운데 음악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고 음악적인 능력인 미의 창조력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음악에는 인간의 정서적인 면에 감화력을 주는 요소가 있다. 일반적으로 슬플 때의 목소리는 낮고 약하며 즐거울 때의 목소리는 풍부하고 크다. 따라서 음악은 인간의 정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음악은 인간성을 완성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인간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생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⁸⁾

음악적 정서는 사람의 내면과 음악의 지속적인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음악에 대한 감정 상태를 뜻한다. 그것은 음악 작품과의 만남과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과 예술의 의미를 발견하며, 그와 동시에 타인의 느낌과 감정을 수용하고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는 지속적인 경험으로부터 형성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람은 음악체험이 자기구현의 정신적 충족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 음악을 통하여 타인의 느낌과 감정을 민감하게 감지하거나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¹⁹⁾

이와 같이 음악 감상은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음악을 이해하며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또한 인간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고 인간의 마음속 깊이 호소되어 정서에 작용하기도 하는 음악을 감상하므로 정서에 안정을 가져오며 우리들의 마음을 밝고 풍요롭게 해준다.

음악을 즐겨 감상함으로써 자신의 음악성을 찾아내고 음에 대한 반응력을 높이고 나아가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음은 물론 음악적 태도를 향상시키는데도 감상은 반드시 필요한 음악교육의 하나다. “음악을 듣는 일이 음악적 능력의 향상과 음악적 태도의 계발에 도움이 되는 행위가 될 수 있는가 아닌가는 학교의 음악 학습에서 개발되는 내적 동기와 감상

18) 유덕희 “음악교육학 개론” p.13-14

19) 이흥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 세광음악 출판사 1992)p.13-14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20)는 말은 학교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말인 것이다.

감상은 음악의 아름다움을 향수 하는데 있어서 그 원천이며, 음악 교육의 목표가 음악 경험을 통해서 음악미를 올바르게 지각하고 이해하며 미적으로 반응하는 음악적 감수성을 계발하는 것이라고 볼 때 감상과 음악 교육의 목표는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감상은 예술 작품의 미적 내용을 음미 향수 하는 하나의 체험의 과정이다. 따라서 단순한 음향 지각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형식의 파악, 내용의 체험, 질서와 가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올바른 감상 지도 방법이 필요하다.

음악작품을 음미하고 거기서 미적인 내용을 즐기며 이해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음악 감상은 연주, 창작 등과 같이 음악 학습활동에서 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교육의 모든 부분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는 음악 감상은 단순한 청취활동이 아니고 훨씬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21)

즉 단순히 머무는 수동적 태도가 아닌 창조적 활동을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술적 작품을 음미하고 그 미적 경험을 즐기며 이해하는 음악적 체험이다.22) 감상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미적 감명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미적 감동의 의미까지도 내포한다. 즉, 음악 감상이란 리듬, 화음, 가락, 형식, 프레이즈, 음색, 음직 등과 같은 음악의 모든 표현적 반응이며 또한 음악의 구체적인 의미를 지각하는 것이고 음악적 자극에 대한 바람직한 징후나 반응을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적 경험을 통해 음악을 느끼고 이해하는 감수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음악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때, 그 경험의 필수 형태인 감상은 음악교육 과정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3)

감상 교육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체험을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참된 음악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며, 감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심미적으

20) 이흥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p.211

21) 유덕희. “음악교수법” (서울 : 정음사. 1976) p.13

22) “음악대사전”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0

23) “음악대사전”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0

로 또는 지각적으로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는 지도방법에 따라 학생들의 지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교육의 성과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교수법에 다양한 연구와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마. 음악 감상의 중요성

음악은 하나의 의미를 지닌 체계화된 형태로써 이념과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적 예술이다. 이러한 음악을 듣는 경험은 음악의 어느 단계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며, 타 영역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악 감상은 음악을 미적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일과 듣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음악미를 일으켜 의욕이나 자극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마음과 머리에 도 언제나 풍부하게 음악을 갖는 것은 자극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 자극이야말로 음악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교육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²⁴⁾

음악 감상은 음악을 형성하고 있는 음을 인식하고 느끼는 것, 또는 개인의 기초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주관적이며 자유스럽게 음악을 즐기는 것 등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학교 교육에서의 감상은 음악을 미학적 의미에서의 이해와 향유로서, 리듬과 화음, 음색, 조성, 악구 등 음악의 모든 구조적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감응과 학습을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음악 감상은 가창, 기악, 창작 등 모든 영역의 활동에 고루 침투되어서 음악의 종합적인 기초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⁵⁾

음악 감상은 예술 작품의 미적 내용을 음미(吟味), 향수(享受)하는 하나의 체험의 과정이다. 따라서 단순한 음향 지각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형식의 파악, 내용의 체험, 질서의 가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올바른 감상 지도 방법이 요구된다.

바. 감상 교육의 유의점

24) 유덕희. “음악 교육학 개론” (서울 : 학문사. 1981) p.13-14

25) 유덕희. “음악교육론” (서울 : 개문사.1983) p.97

음악을 듣는 것(Listening)과 감상한다는 것(Appreciation)은 동일한 행위는 아니지만 듣는다는 말은 음악의 이해와 애호심을 조장시키는 수단을 뜻하기 때문에 감상 지도에서는 들려준다는 것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지도할 때에 유의 할 점은 학생들이 음악을 듣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흥미를 일깨울 수 있는 악곡의 선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고 예술적으로 깊은 가치를 충분히 반영된 악곡을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수업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음악을 듣고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을 신장시키는 일도 잊어서는 안된다. 교사는 실험적인 태도와 연구적인 정신을 가지고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여야 하며 그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음악에 대한 애호심과 음악을 통한 자기실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감상교육의 목적과 음악 교육의 목적이 음악적 감수성 계발이듯이 올바른 감상 지도를 통해 음악적으로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감상 교육이 되어야 한다.

사. 감상의 태도

음악 감상의 학습 지도는 음악을 잘 감상 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가치를 파악,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학습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그런데 이러한 감상에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감상활동에 대한 태도가 학습 결과의 성패를 좌우한다.

감상 태도에는 주관적인 감상, 객관적인 감상, 혼합적인 감상을 들 수 있다.

먼저, 주관적인 감상은 주관이 많이 내포되고 있고 단순히 감각적, 감성적으로 감상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의 기호에 치우치기 쉽고 감상 능력 향상에 소홀하기 쉬운 결점을 갖고 있지만 음악교육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객관적 감상은 음악의 구조적인 면에서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감상을 말하며, 음악적 감각과 지성이 그 중심이 된다. 리듬, 가락, 화성, 악곡의 형식, 음색 등의 여러 가지 요소와 음악이 지닌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지나친 분석에 치우쳐 음악이 딱딱해져서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될 염려도 있다. 그러나 지적인 능력과 음악적인 감각의 향상

을 기대 할 수 있다.

혼합적 감상은 인간의 감정을 존중하여 음악적인 감성과 지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다. 먼저 종합적으로 감상한 다음 이것을 다시 분석적 구체적인 방법으로 감상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주관과 객관이 잘 혼합되어 음악에 대한 가치 판단력이 높아 질 수 있는 이 혼합적 감상 방법이 이상적인 음악 감상법이라 할 수 있다.

아. 반응의 표현

음악 감상을 음악 교육의 목표와 관련해서 보면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악곡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고찰할 수 있는 음악적 감수성을 계발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감상을 위해서는 ‘듣는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 듣는 자세와 마음에서 형성되는 Listening은 다시 악곡의 표현 기능에 반응하는 능력, 즉 음향에 감동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해서 올바른 Appreciation이 이루어진다. 이 표현을 미적으로 지각하는 일과 관련된 미적으로 반응하는 일에는 신체적, 감각적/극적, 지적, 비평적 반응 등이 있다.²⁶⁾

첫째, 신체적 반응은 청각적 자극에 대한 감정을 직접적인 신체적 운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학교 형태별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화하는데, 직접적인 신체적 표현으로는 손뼉 치기, 춤, 행진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며 악곡에 반응하는 한 방법이 됨으로 감상 교육에 필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어린 유아 시절부터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둘째, 감각적 반응이다. 이 반응에서는 소리 그 자체가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주는 단계이다. 소리를 들으며 시각적, 후각적, 촉각적 감각의 느낌이 동반되는 것을 말한다. 음향에서 특정한 색채감이 느껴지거나 냄새 등을 연상하기도 하는 그러한 반응을 말한다.

셋째, 감정적/극적 반응이 있는데 음악을 듣는 사람이 마음을 들뜨게 하거나 또는 우울하게 저하시키는 반응을 말한다. 이 단계까지는 주관적, 감정적으로 음악을 느끼는 감상으로서 음악을 부담 없이 듣고 즐기는 단

26) 이연경 “감상능력 육성을 위한 음악과 학습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 15집 (서울 : 한국음악교육협회, 1996)p.6

계라 할 수 있다.

음악의 구조가 소리를 생성하는데 사용된 작곡 기법이나 음악의 요소를 어떻게 선택하고, 사용하는지를 탐색하는 반응이 바로 지적 반응이다. 이것은 음악을 외형적인 반응에서가 아닌 조용한 태도로 감상하는 것이다. 특히 과거에 감상한 경험이 있거나 연주한 경험이 있는 악곡이라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비평적, 창조적 반응인데, 이것은 음악 감상 결과 가장 바람직한 반응으로 스스로 창작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학생이 흥미를 갖는 것을 우선으로 이해와 흥미를 갖게 하는 곳의 선택이 필요하다. 곡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감상수단이다.

악곡의 감상 속에서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작곡자의 의도와 음악의 구성 요소와 표현 요소의 선택을 탐색하고 학생 스스로의 방법으로 표현해 보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구두 반응이 있다. 구두 반응은 감상의 소감을 말이나 짧은 문장 그림 등으로 표현하게 하는 방법이다. 음악을 심미적, 비평적으로 감상하고 자신의 음악적 용어로 감상하게 하고, 리듬과 가락 등 구성 요소와 표현 요소를 자신의 느낌대로 구두로 표현한다든지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잘못하면 지나치게 지적인 요소만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상자에게 부담을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된다.

다. 음악 감상교육의 단계

미국의 현대작곡가 Aron Copland(1900-1990)는 음악 감상의 단계를 감각과악의 단계(sensuous plane), 표현력 감지의 단계(Expressive plane), 이해와 평가의 단계(sheerly musical plane)로 나누었다.

① 감각과악의 단계(sensuous plane)

이 단계는 작곡가나 연주자가 사고와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 음악의 흐름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음악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저 즐기는 단계이다. 음악을 듣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음악을 접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작추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음악과 친숙해질 수 있는 여건과 동기를 부여하고 조성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학습형태도 음악 이외의 이야기나 묘사 등의 다른 영역이 많이 부과되어야한다.

② 표현력 감지의 단계(Expressive plane)

이 단계는 음악이 가진 표현력을 감지하는 단계이다. 음악의 표현은 항상 음의 언어인 음향을 통해서만 어떤 의미를 가진다.

이 단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가치 있는 감상은 한 작곡가의 작품에 나타난 주제와 더불어 음악 전체의 독자적인 표현력을 감상자의 느낌에 맞게 탐색하는 것이다. 같은 음악을 감상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느낌과 감동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감정의 세계를 나타내게 된다. 그 주제를 예외적인 감동을 스스로의 마음에 그려보는 것은 음악 이해의 능력을 기르는 좋은 계기가 된다.

③ 이해와 평가의 단계(sheerly musical plane)

감상의 제 3단계는 음악의 이해와 가치평가를 목표로 한 감상의 적극적 단계이다. 음악을 이해한다는 것은 작품에 담겨진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감상자의 개성과 이해력에 따라 독자적인 감동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감상자에게 있어서는 그 창조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단계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음악 감상의 올바른 기준을 설정해 준다는 것은 음악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²⁷⁾

라.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구상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이 있다. 구상적인 것은 주로 지적으로 감상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지적이란 악곡의 조성의 박자, 리듬, 화음, 빠르기, 음 빛깔, 형식, 악곡이 지어진

27) 윤양석 “음악의 이해”(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p.20-22

시대의 사회적 배경 등 모든 것을 분석하여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감상을 위해서는 음악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기초연구가 있어야 한다.

추상적인 감상 방법이란 음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일일이 분석하게 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악곡의 내용을 느끼는 것이다. 악곡의 내용이 시적이거나, 문학적이라든지, 또는 슬프다거나 장엄, 쾌활하다거나 등의 느낌을 정서적으로 감상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추상적인 감상만으로는 음악에 대한 감상이 소홀해지며 주관적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구상적, 추상적 감상방법이긴 하지만 멩쳐야 비로소 악곡 전체의 느낌을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감상이 된다.

또한 이해와 평가의 단계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소리가 조성적 및 시간적으로 어떻게 짜여 지는가를 감지하고, 그것이 어떤 아름다움과 의미를 생성하는지를 이해시키는 일은 감상학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음악 감상 학습은 다만 음악을 듣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위에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능력과 그 소리를 의미하는 음향으로 전환 수용하는 능력, 그리고 악곡의 구조와 그 표현성을 총체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동시에 길러 주는 일이어야 하는 것이다.²⁸⁾

고전주의음악의 효율적인 감상 지도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설명해 보려고 한다.

1) 고전주의 음악을 통한 효과적인 감상 지도 방법

감상은 음악을 예술적으로 즐기는 능력 또는 음악을 이해하고 미적인 내용을 즐기면서 이해하는 경험이다.²⁹⁾ 따라서 단순히 음악을 듣는 음향 지각의 차원을 벗어나 바른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감상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음악 활동의 기초 단계인 감상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통합적 음악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고전주의 음악 감상 수업에서 고려해야 할 점과 단계별 지도 방법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28) 유덕희 “음악 감상 입문” (서울 : 개문사, 1983) p.97-98

29) 이흥렬 “음악감상론” (서울 : 정음사 1976) p.20

① 고전주의음악 감상 수업에서 고려할 점

고전주의 음악 감상수업에서 효과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감상 곡을 한번 들려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반복해서 듣게 하고 들을 때마다 주제 선율에 주의해서 듣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감상 곡의 구성요소와 생성원리, 작품의 표현 내용 등이 학생의 음악적 성장 단계와 맞는지를 고려하여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정신 발달, 요구,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계적인 수업을 계획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선곡, 과목 연계수업, 개념적 접근 방법 등으로 교수방법을 세분화하여 그에 따른 유의점을 다음과 같이<표-1> 고려하여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

<표-2> 감상학습의 교수방법 및 유의점³⁰⁾

교수방법	유의점
선곡	처음에는 긴 곡보다는 짧은 곳을 선택하여 듣는다.
과목 연계수업	다른 과목과 연관되어질 수 있는 작품을 고려한다.
개념적 접근방법	가능한 한 음악의 개념들과 연관된 학습 안을 구상한다.
학습의 난이도	우선적으로 작품과 음악 외적인 현상 (작곡가의 생애, 작품의 시대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 등)과 초보적인 감정 표현을 다루고, 점차적으로 구조 분석을 통한 개념적 파악 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시각적 효과	도시악보들 (그림, 그래프, 도표)을 활용한 시각적 효과를 통하여 음악적 표현 능력을 강화시킨다.
적극적인 활동	학생들이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음악적 현상들(예 : 반복, 대비, 음색, 셈여림) 등을 그때마다 제시하여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감상 활동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평가	습득된 음악적 개념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과 연관, 적용, 응용하여 음악적 개념의 이해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전주의음악 감상의 단계별 지도 방법

음악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이 단계를 구분하였는데, 호퍼(Charles R. Hoffer)는 첫째, 물리적인 소리 감각을 이해하고, 둘째, 음악에서 제시되는 풍부한 표현적 내용들을 이해하고, 셋째, 음악적인 사건들에 집중해서 듣는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었다.³¹⁾

30) 민경훈 “현대음악 학습 방법 연구” (서울 : 서울대 음악 연구소 1999) p.297

밀러(High M. Miller)는 감상하는 형태를 듣는 태도에 따라 첫째, 음악이 부수적인 목적을 수반하지 않고 들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감상(passive appreciation), 둘째, 음악의미를 감각적으로 즐기는 태도인 감각적 감상(sensual appreciation), 셋째, 음악의 분위기와 함께 자신의 반응에 비중을 두는 정서적 감상(emotional appreciation), 넷째, 음악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지며 구성 요소를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판단력이 갖춘 지적 감상(intellectual appreciation)의 단계 이렇게 4단계로 나누었다.³²⁾

로버트 와이스(Robert Weiss)는 무의식적 감상, 기술적 감상, 통찰적 감상의 3단계로 나누었는데 무의식적 감상은 감상자의 주의 집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감상 단계이고, 기술적 감상은 음악 소리의 형식적 관계에 초점을 두는 감상이며 이는 먼저 음악에 있어서의 구체적 요소, 즉, 리듬, 가락, 화성, 음 조직, 음색에 있어서의 변화 과정을 인식하고 이러한 요소들의 관련성, 즉 곡의 전체적인 형식을 인식하는 단계이며 통찰적 감상은 보다 깊은 감상의 단계로 기술적 감상에서 얻은 내용들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새로운 주관적 실체, 의미를 갖게 되는 단계이다.³³⁾

효과적인 감상 학습을 위하여 지도법을 계획 할 때, 유념해야 할 몇 가지 단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은 상호간에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에 제시되는 감상수업 7단계는³⁴⁾ 학생들이 음악을 들을 때 음악에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도록 하고, 음악의 지적인 개념에 더 나은 이해를 도모하며, 음악성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단계 : 준비 단계(Preparation)

준비 단계에는 학생들에게 감상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초점이나 목표를 제공한다. 또한 학생 자신의 경험과 연관을 지어 토론한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31) Hoffer. Charles R. "concise introduction to Music Listening war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1. p.7

32) Miller, High M. 양일용 역, "음악감상을 위하여"(서울 : 태림출판사 1991) p.18

33) Weiss, Robert Music and Expression (Wm. C. B개주 Publishers)1991 p.13-19

34) Anderson. 1988, Clark. 1960, Feldman. 1987, Mahon Jones. 1986의 자료를 Sasked Curriculum에서 적용한 것임 - 석문주, "교실에서의 음악 감상" (서울 : 교육과학사 1999)p.11-15 재인용

- ① 작곡가나 음악가의 간단한 전기
- ② 감상할 음악의 종류나 음악 양식
- ③ 작곡된 시대와 그 음악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 ④ 감상자로서의 태도

수업에서 음악에 초점을 맞추어 듣도록 간단한 질문을 하거나, 어떤 내용을 듣도록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2단계 : 첫 느낌 단계 (Frist Impression)

음악을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음악에 대한 결정은 과거의 음악적 경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는 작곡가나 음악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보다는 우리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 할 때가 더 많다. 음악을 들을 때 생각나거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휘를 나열하도록 하는데, 이는 후에 다른 단계에서 참고 된다. 어떤 어휘는 ‘설명’이나 ‘분석’ 단계일 수도 있고(바이올린 소리, 목소리, 높다, 낮다, 느리다 등) 어떤 때에는 ‘판단’단계 (음악이 평화로워서 좋다, 연주를 잘 한다 등)의 어휘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3단계 : 설명 단계 (Description)

설명 단계에서는 무엇을 들었는지를 설명하도록 한다. 음악을 듣고 음이 높고/낮고, 빠르고/느리고, 복잡하고/단순하고, 크고/작고, 북/바이올린/목소리 등의 간단한 말로 답하도록 하고, 교사는 이를 칠판에 기록한다. 곡을 설명하는 동안 학생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는가를 본다. 학생 각자가 음악의 다른 면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반응은 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음악을 듣고 자신의 독특한 방법이나 언어로 설명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음악적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음악적 어휘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4단계 : 분석 단계 (Analysis)

분석 단계에서는 곡의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요소들 사이의 관련성을 찾도록 한다. 다음을 분석 단계에서 질문할 수 있다.

- ① 음악이 반복되는가, 대비되는가?
- ② 음악에 긴장감이 있는가? 있다면 작곡가가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긴장

감이 이완되었는가?

- ③ 어떤 음색을 들었는가?
- ④ 곡의 조성은 무엇인가?
- ⑤ 당김음이 있는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 ⑥ 음악가/작곡가가 관심을 끌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곡을 만들었는가?

5단계 : 해석 단계 (Interpretation)

해석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무엇을 들었는가에 대한 느낌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논의하게 된다. ‘첫 느낌’ 단계에서는 이야기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들의 느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묻는다.

학생들은 자신의 실제 생활과 관련지어 의견을 발표한다. 이러한 관련성은 학생의 문화적 특성, 개인적 관점, 과거의 음악적 경험에 따라 매우 다를 것이다. 교사는 학생 각자가 들은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도록 하고, 비평의 두려움 없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아는 것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다음 활동이 이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① 음악과 관련지어 상상한 것을 모으고 비교 한다.
- ② 음악과 관련되는 주제, 분위기(음악을 사용하는 영화, TV에 나오는 광고 등)을 브레인 스토밍³⁵⁾ 한다.
- ③ 어디에서 연주되는 것이 적합한지 토의한다(교회, 연주회장 등)
- ④ 음악가/작곡가가 왜 이 곡을 만들었는가를 토의한다.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특별한 느낌을 주기 위하여 등)
- ⑤ 다른 음악가/작곡가가 어떻게 비슷한 유형의 곡을 만들었는지를 토의한다.
- ⑥ 음악을 들은 후 그룹별로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수업에서 각 그룹의 그림을 관찰하며 음악을 듣는다.
- ⑦ 음악에 대한 반응을 기초로 하여 곡을 만든다. 예를 들면, 비슷한 주제, 리듬, 분위기, 양식, 형식을 가진 곡을 만든다.

35) 브레인 스토밍 : 일정한 테마에 관하여 회의형식을 채택하고, 구성원의 자유 발언을 통한 아이디어의 제시를 요구하여 발상을 찾아내려는 방법.

6단계 : 정보수집 단계(Gathering Background and Information)

이 단계에서는 음악 작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도록 한다.

- ① 작곡가의 전기
- ② 음악가/연주가의 전기
- ③ 같은 시대에 쓰여진 다른 음악
- ④ 같은 작곡가의 다른 음악, 각기 다른 그 문화에서 쓰여진 음악들의 비슷한 측면과 다른 측면

7단계 : 판단 단계(Informed Judgement)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곡을 듣고, 조사하고, 학습한 것을 토의한다. 만일 학생이 연주를 하였다면 자기 평가를 하도록 하며, 교사는 학생들이 긍정적이고 사려 깊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여야 한다.

- ① 목소리가 너무 높아서 듣기가 힘들다.
- ② 성악곡이 기악곡보다 더 좋다.
- ③ 음악이 느리고 평화롭다. 생기 있는 음악이 좋다.
- ④ 가락을 따라가기가 힘들다. 계속 변하고 반복이 없다.
- ⑤ 리듬이 너무 복잡해서 따라잡기가 힘들다.
- ⑥ 이 곡은 긴장감이 있어 매우 흥미롭다.
- ⑦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니까 매우 흥미롭다.
- ⑧ 첼로 독주가 너무 좋다. 연주를 잘한다.
- ⑨ 다른 성부에서 다른 악기로 가락을 연주하는 것이 좋다.
- ⑩ 간주 부분이 매우 흥미롭다.

음악 감상에 사용되는 음악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훌륭한 음악이어야 한다. 즉, 표현력이 풍부한 음악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훌륭한 음악이란 음악 작품이 만들어진 후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그 가치와 아름다움이 퇴색하지 않고 찬란한 빛을 발하는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명곡을 의미한다.³⁶⁾

가정이나 학교에서 음악을 듣게 되는 기회는 대단히 많다. 가벼운 기분

36) Reimer, Benett. “음악 교육 철학” 신도웅 역. (서울 : 세광 음악 출판사, 1987)

으로, 그저 시간 보내기로 음악을 듣는 경우도 있고, 깊이 심취하여 듣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듣게 되는 기회가 많고 음악을 듣는 경우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것과 음악을 음악적 성숙에 도움이 될 정도로 감상할 수 있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음악을 듣는 일이 음악적 능력의 향상과 음악적 태도의 계발에 도움이 되는 행위가 될 수 있는가, 아닌가 학교의 음악 학습에서 개발되는 내적 동기와 감상 능력에 따라 결정될 수 있듯이 음악 교육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는 감상이 되어야 한다.

음악적 능력의 향상과 음악적 태도의 계발을 위한 감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상자의 적극성과 능동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음악을 감상한다는 것은 악곡을 이루는 미세한 물리적 음향 현상들과 형식적 구조를 분석적, 종합적으로 지각하고, 그것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포착하며, 더 나아가 악곡이 함축하고 있는 예술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음악 작품의 예술적 의미를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에, 음악 감상은 보다 의미 있는 음악적 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인간적 경험이 되고, 음악적 능력의 발달과 음악적 태도의 계발에 도움이 된다. 학생들에게 감상을 통해 이러한 음악적 감동과 풍부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하여서 음악 감상 교육은 다음과 같은 지도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³⁷⁾

첫째, 음향 현상에 대해 예민한 청각을 길러 주어야 한다. 소리의 같고 다름에 주의를 기울여 분별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음 현상에서 받은 느낌을 실제로 표현하도록 이끄는 것이 청각의 발달을 돕는다.

둘째, 음악 감상은 통합된 음악 경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음악 수업이 주어진 시간 안에 가창이나 기악의 한 활동에 국한하여 전개되는 경우, 음악에 관련된 지식이나 이해는 음악 이론 시간에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음악 감상에서는 음악의 진행을 예상하고 작품의 질을 비판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악곡의 진행을 예상하고, 작품의 질을 비판하는 일은 이전에 한 모든 종류의 음악적 경험이 종합되어 이루어지는 수준 높은 음악

37) 이흥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p.180-194

행위이다.

넷째, 악보를 읽으면서 감상하도록 지도한다. 악보를 사용하는 능력은 음악행위 능력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 속한다. 그것은 연주와 창작을 비롯한 모든 음악 활동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음악수업을 통해 반드시 습득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음악 능력의 하나이다.

다섯째, 악곡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실들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악곡을 감상하기 전이나 후에 작곡가와 작곡된 시대적 사회적 배경, 연주자 등을 감상 곡과 관련지어 살펴보는 것은 감상할 곳에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곡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2. 통합적 음악학습이론과 교수방법³⁸⁾

가. 통합적 학습 이론

음악학습에서의 통합적 접근 방법은 음악교과에서 다루는 모든 영역(신체표현, 독보, 가창, 기악, 창작 활동)을 계열화하여 학습자에게 통합적인 음악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통합적 음악학습이론은 고든(E. Gordon)의 음악학습 심리이론을 기초로 하여 미시건 대학의 프로세스가 개발한 것으로 독보, 창작활동 등 여러 학습활동을 종합적으로 학습하는 단계를 제시하고 있어 이 연구의 주요한 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CMLS는 독보, 가창, 기악, 창작활동을 계열화 하여 학습자에게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음악경험을 제공한다. 학습자들은 CMLS를 통하여 음악의 적극적 감지(active feeling)→ 내면화(internalization)→ 외면화(externalization)→ 기호화(symbolic association)→ 종합(synthesis)의 단계를 거친다. CMLS의 감지는 음악에 대한 청취에서 시작되며, 내면화는 리듬음절이나 가락음절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외면화는 내면화된 음악 패턴을 노래나 신체표현 또는 악기로 재현(reproduction)하는 활동이며,

38) 권덕원 외 <음악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2005) p.232-237 요약정리

기호화는 내면화된 음악패턴을 상징의 형식과 연합하는 과정이다. 제일 상위단계인 종합단계에서는 1단계 - 10단계까지에서 학습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음악적 사고를 재구성하는 고차원적 학습단계이다. 통합적 음악학습단계 이론은 전체를 하나의 교수-학습 단위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하위 학습단계들을 모듈화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CMLS는 리듬학습, 가창학습, 기악학습, 이해학습을 기본 모듈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모듈들은 독립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나. 통합적 음악학습이론의 특징

통합적 음악학습단계는 활동영역의 통합, 통합적 교수법, 모듈화 학습, 모델-모방학습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활동영역의 통합

통합적 음악학습 단계는 신체표현(1-10단계), 리듬학습, 가창학습, 기악학습, 이해학습 및 평가활동을 하나의 계열로 통합하여 제시한다. 따라서 학습자는 동일한 제재곡에 대하여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다. 통합적 음악학습단계의 이러한 통합적 특징은 학교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일치한다. 교육과정은 가창, 감상, 기악, 및 창작 활동 간의 통합뿐만 아니라, 이해(개념)와 활동의 통합을 강조한다. 통합적 음악학습단계 이론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여러 활동과 유기적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2) 통합적 교수법

통합적 음악학습 단계는 달크로즈, 코다이 및 오르프의 교수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한다. 달크로즈 교수법의 핵심은 음악을 신체적으로 경험하고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통합적 음악학습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제1 단계인 음악을 듣고/반응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음악에 대해 신체적으로 반응하도록 유도된다. 또한 리듬과 가락을 패턴으로 단위화 하고, 이들을 각각 리듬음절과 가락음절(계명)으로 연결하여 내면화하는 과정은 코다이 교수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음악학습의 기본단위를 악절이나 악구보다 작은 패턴으로 가르치는 방식은 오르프 교수법에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신체표현-언어-악기의 연결과정이 통합적 교수법에서는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있다.

3) 모듈화 학습

통합적 음악학습 단계는 1단계에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의 학습이 연속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차시에 따라 리듬학습, 가락학습, 기악학습 및 이해 학습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리듬(가락)패턴의 적극적 감지(청취)-신체표현-언어음절과의 연합-표현(가창 또는 기악)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위계적이다.

4) 모델-모방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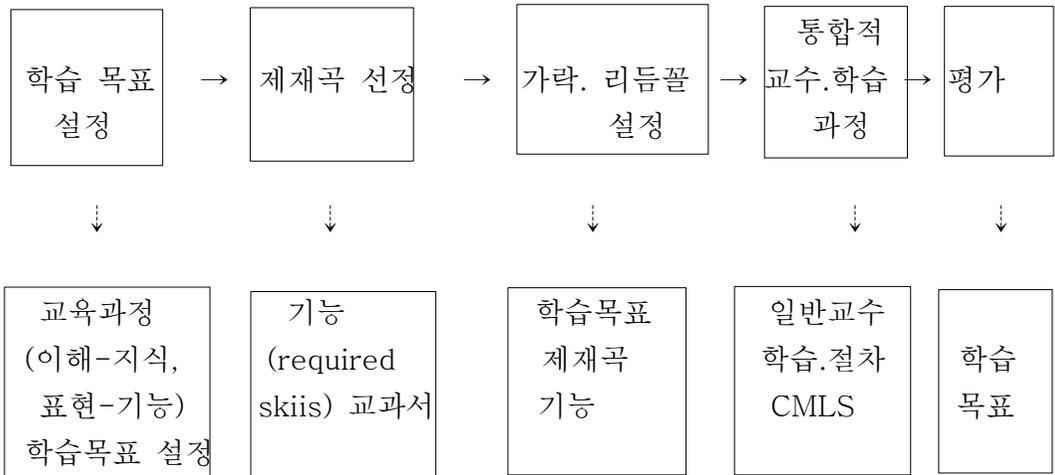
통합적 음악학습단계에서는 교사나 매체가 제시하는 음악패턴을 학습자가 기계적으로 모방하도록 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학교의 음악학습은 교과서에 제시된 악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각적이라고 한다면 통합적 음악학습단계에서는 교사나 매체가 제시하는 음악을 듣고 그 소리를 모방한다는 점에서 청각 중심적이다. 음악은 소리를 다루는 예술이며 소리는 본질적으로 청각적이라는 점에서 귀에 의존하는 음악학습이 보다 음악의 본질에 가까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통합적 음악학습단계를 반영한 교수모형

통합적 음악학습단계 이론을 교실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이론 자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일반적 교수요소들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교실에서 한 단위의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은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학습 매체, 평가 등이다. <그림 1>은 CMLS를 기초로

하여 이들 요소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교수 모형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1> CMLS 교수모형



학습목표는 교육과정의 이해와 표현 가운데서 각 학년별 하위 학습요소를 중심으로 설정한다. CMLS는 여러 활동영역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학습요소들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다.

1) 제재곡 선정

제재곡은 교육과정의 학습요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음악을 선정한다. 교과서의 악곡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그러나 학습목표의 특성상 교과서에 적절한 악곡이 없다면 교사가 교과서 이외의 자료에서 적절한 제재곡을 선정할 수도 있다. CMLS는 하나의 완성된 악곡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제재곡 중심’이 아니고 짧은 패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목표와 관련된 제재곡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2) 가락. 리듬꼴 선정

학습목표에 따라 선택된 제재곡에서 주요 리듬과 가락패턴을 추출한다. 이 때, 리듬패턴이나 가락패턴이 제재곡과 완벽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다.

제재곡의 리듬이나 가락적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음악의 시작 재료로서 사용되기에 좋은 패턴, 음악을 진행 또는 지속하기에 적합한 패턴 그리고 음악을 끝마치기에 좋은 패턴들을 적절하게 고르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통합적 교수.학습 단계

이 단계는 선정된 패턴들을 재료로 하여 통합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진술한 바와 같이 전체의 단계를 하나로 연속해서 수행할 수도 있고, 차이나 시간 계획에 따라 모듈별로 학습할 수도 있다.

4) 평가

CMLS 과정에는 평가 과정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학습목표에 맞추어 독립적인 평가 학습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3. 고등학교에서 음악 감상의 중요성

가. 청소년기의 특징 (고등학교 1학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특징은 단순한 신체적, 생리적 성장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성숙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와 발달의 양상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성격 형성이나 성장 발달이 좌우된다. 이러한 청소년기를 대략 전기(12-15세), 중기(16-18세), 후기(19-22세) 세단계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각 단계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³⁹⁾

전기는 감수성이 매우 민감하여 매사에 동요되기 쉽고 흥분되기 쉬운 시기이다. 그리하여 그 내면적 불안이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대한 필요 없는 반항을 일으키게 만든다. 또한 그들은 어떤 반항에 스스로 무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대인관계

39) 김체한. “발달 심리학” (서울 : 학문사 1990) p.205

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두드러져서 고립화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중기에는 전기의 성격이 더욱 강해져서 격심한 정서를 직접 표출하기도 한다. 슈타이너에 따르면 이 시기는 ‘사고와 자아 인식의 성숙기’의 중기에 해당된다. 감정(感情)체로서의 성숙 단계를 넘어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행동하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성년기에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을 자아인식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와 인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예술의 관계나 고뇌를 통한 예술 작품의 탄생까지도 주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후기에도 역시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이지만 그 표출은 사회적으로 적응된 상태의 안정감을 나타내며 이상을 추구하고 현실에 대한 적응에 노력하며 냉정히 자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희열을 느끼게 되며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다. 이 시기에 비로소 참된 인간의 경험을 느끼게 되며 동시에 보다 넓은 가치 세계를 내다 볼 수도 있게 된다.⁴⁰⁾

나. 사고의 특징

피아제(piaget)의 인지 발달론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period)라고 명명하며, 12세기경의 사춘기에서 성인기에 접어들기까지를 말한다. 형식적 조작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추상적 사고란 융통성 있는 사고, 효율적인 사고, 복잡한 추리, 가설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일, 직면한 문제 사태에서 해결 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는 일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⁴¹⁾

청소년기 사고의 특징은 첫째, 논리적(論理的)이다. 흑백의 논리가 강하

40) 이흥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p.273-274

41) 김세한 “발달 심리학” p.205

게 나타나며, 이론을 추구하고 현실을 경시하는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세계로 치우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존 질서나 가치를 비판하고, 성인들의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사고와 행동에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는 점만을 납득하게 된다.

둘째, 사색적(思索的)이다. 어느 시기보다도 심하게 사색이 빠지게 된다. 인생, 진리, 행복 등을 탐구하려고 하며, 회의와 쾌락에 관해서 사색이 깊다. 여기서 청소년은 불안, 공포, 고독, 백일몽, 현실도피, 허무, 회의,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셋째, 상상(想像)성이 있다. 상상이란 이전의 경험을 해체하여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청소년기에는 상상이 매우 풍부하다. 때문에 특히 문학, 예술에 대한 동격과 기호가 많고 탐정소설이나 허구적인 공상을 좋아한다. 청소년기의 상상은 순수하고 숭고하다. 그러므로 사고의 발달은 지적 발달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기 정신 상태나 적응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⁴²⁾

다. 지적 특성

청소년기의 지적 특성은 초기, 중기, 후기 세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 초기(중학생)에는 정서가 불안정하게 되며 정서의 진폭(振幅)은 비교적 넓으며 격렬하다. 그리고 지식을 구하려는 정열은 급격하거나 논리적 기억에 이르지 못한다. 공상적이고 주위 사람에 대해서는 불합리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낭만적인 문학을 좋아한다.

둘째, 청소년 중기(고등학생)에는 청소년의 핵심적인 중심기로 청소년기의 특색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 그리고 지능의 발달이 정점에 달하여 어느 정도의 완성을 본다. 지적 사변(思辨)이 추상적이고, 부정적, 회의적으로 되기 쉬우며, 자아의식의 발달과 더불어 자기의 신념을 강하게 가져 독선적으로 되기 쉽고, 낭만적인 인생을 생각하기 쉽다. 또한 인생관 세계관 등의 문제에 조급한 결론을 알고 싶어하며, 그 결론은 강한 감정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셋째, 청소년 후기(대학생)에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현실을 직

42) 김용래 “교육 심리” (서울 : 학문사 1985) p.101

시하여 사리에 맞는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자기반성을 하게 되며, 자기반성은 의지 발달에 대단히 중요하다. 즉, 자기반성에 의하여 자기의 진가를 알려고 하는 것은 자각(自刻)의 일보이며 여기서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제2의 탄생을 하는 것이다. 자기와 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며 현실과 이상과의 타협이 점차 성립되는 시기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지적 발달은 앞으로 그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자나 부모들은 그들의 능력이나 경험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태에 관한 통찰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 그리고 추리력과 판단력은 청소년의 정신적 성숙과 경험 배경의 범위 안에서 발전시켜주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가장 바람직한 청년이란 정확한 추리력, 객관적인 판단력을 내포하는 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건전한 정서 발달, 원만한 사회 적응과 더불어 건전한 신체적 발달을 이루는 것이다.

라. 정서적 특징

정서는 모든 행동의 기초로서 행동의 표출 방법과 방향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정신생활을 지배하게 되므로 정서는 가장 근원적인 자아 체험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각종의 생활 감정이 발달하므로 더욱 정서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첫째, 청소년 초기에는 지적인 바탕 위에 성적(性的) 증후와 그 행동에 의하여 정서는 성적인 색채를 띄우게 된다. 또 외부에 대하여 허세(虛勢)적인 반향이 커진다.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한편 고독을 원하고 고독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민감한 정서의 움직임으로 외계(外界)를 지각함에 있어서도 불안과 초조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

둘째, 청소년 중기에는 정서가 더욱 강해져서 격심한 정서의 직접적인 표출을 억제하고 성적인 것이나 기타의 정서도 의식적인 억제 작용이 활발하다. 자아의식은 높아지고 독선적이어서 우월을 과시하려 하고 현실을 부정하여 혐오하는 경향이 짙게 된다. 또한 이상을 높이고 이성을 논의하며 낭만적, 감상적으로 흐르게 된다.

셋째, 청소년 후기에는 질풍노도와 같은 정서이지만 그 표출은 사회적으로 적응시켜 안정성이 나타난다. 이상을 추구하고 현실에 대한 적응에 노력하며 냉정히 자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성에 대한 사모와 연애의 체험은 정신생활을 더 한층 풍부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정서는 복잡하게 변화하고 발달하지만 후기에 이르러서 정서의 신장에 익숙해지고 자기 통제의 힘도 증가하게 된다. 즉, 정서가 강렬하고 불안정한 것이다. 기쁨, 슬픔, 노여움에 민감하게 되고 무서움은 아동기와는 질적으로 달라져 죽음, 운명, 시험 등 추상적인 것이 점차로 많아진다. 직접적인 표출이 점차로 적어지며 내부적으로 침체(沈滯)하는 경향이 강하여 진다.

때로는 청소년의 정서는 조화를 잃을 때도 많으나 이 정서가 지적 작용의 뒷받침이 되며 조용하고도 고등한 지적 감정이나 가치 감정으로서의 순화되어 간다. 조화와 안정이 된 정서 생활은 바람직한 성격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⁴³⁾

마. 고등학교에서의 음악의 역할

고등학교 학생들은 신체적 조건과 인지(認知)구조는 거의 성인 수준에 이르며, 논리적 조작에 의한 사고가 자유로워져서 거의 모든 종류의 문제를 논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고, 과학적 추리와 가설의 설정 및 검증을 할 수 있다. 슈타이너는 이시기는 ‘사고와 자아 인식의 성숙기(15-21세)의 중기에 해당한다. 고등학생들은 감정체로서의 성숙 단계를 넘어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행동하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성년기에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자아 인식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원기 왕성하며, 의미 있는 자극을 제공받을 만한 상황이나 일에 매우 열정적으로 몰입하려는 의욕과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

43) 민영순 “교육 심리학” (서울 : 교육출판사, 1986) p.195

한 가치 있고 생산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그들에게 가치로운 것의 제공과 그것에 관한 적절한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른들의 존중과 수요의 인정과 격려를 필요로 한다.

고등학교 기간의 음악 체험의 질과 양상, 범위는 그들의 음악적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고등학생의 신체적, 지적, 감정적 발달 특성과 함께 자의식의 성숙, 음악적 경험의 범위와 능력 수준 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음악 체험을 체계 있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그 체험은 그들의 음악적 성장과 성숙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음악적인 삶의 질과 양상 까지도 결정적인 작용을 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⁴⁴⁾

바. 고등학생의 음악 감상

청소년기는 개개인이 뚜렷한 개체로 성장하고, 자아를 발견하고, 강한 탐색 욕구, 왕성한 도전 감을 지니는 시기로, 이러한 특성들은 학교의 음악 학습과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을 통해 견실(堅實)한 음악적 성취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청소년기의 이러한 일반적인 인간적 특성들이 음악이라는 특수한 예술 형태와 활동에 작용함으로써 그들은 또 다른 모습의 개체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고등학생들은 이시기에 사고력과 상상력, 어휘력, 지력, 기억력 등이 현저히 발달되고, 관심분야가 확대하며, 집중도가 점차 높아지므로 그들의 폭넓은 음악적 성장 가능성에 음악적 안목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넓고 질 높은 음악의 예술적 요소들을 느낄 수 있는 잠재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 성숙도에 걸 맞는 음악 감상을 시도하면, 악곡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그 예술적 의미를 통찰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에 있어서 음악 감상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예술을 수용할 수 있는 폭과 깊이를 이미 내면에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의 음악 감상 체험이 되어 질과 범위, 그리고 수준이 음악적 삶의 양상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등학생 중에 직접적으로 음악 연주에 참여하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의 수는 매우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감상의

44) 이흥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p.276

기회를 통해 음악을 접하게 된다.

고등학교 음악 감상은 교사가 어떤 감상 곡과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그것을 학습하게 되며,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감상에 임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졸업 후의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태도와 음악적인 삶의 모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 기간의 음악 체험의 질과 범위는 고등학생들의 음악적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감상의 기회를 통해 음악을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등학생들에게 음악 감상이 의의 있는 것이 되려면 감상 곡과 감상곡의 질이 고려되어야 하며, 감상 곡의 종류가 다양해야하고, 작품과 연주의 질적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

1) 2007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정방향과 중점

선택중심 및 학습자 중심을 강조한 제7차 교육과정은 그 실현 가능성 때문에 그 운영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이 평균적 개정 주기를 웃도는 사용 기간을 가짐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전까지 사용되던 연 번호(‘제8차’) 방식을 탈피하여 개정 연도를 제시한 명칭을 쓰고 있다. 그래서 때로 이 교육과정이 제7차 교육과정의 연속선상에 있는지가 논란거리로 부상한다. 전반적 구조와 내용 지침이 이전의 교육과정과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과정의 개발에 있어서 이전의 것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것을 도출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⁴⁵⁾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개발 기간을 가졌는데, 4년에 걸친 기초 연구 및 시안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제7차 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점 및 교과 교육 내용의 개선점(단위 학교 자율권 확대, 수준별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학습량 및 수준 적정화, 학교 급·학년·교과 간 내용의 연계성 강화 등)의 필요성이 함께

45) 민경훈 외(外) 11인 2009 “21세기 음악교육학 총론” 한국교원대학교 출판부 p.134

부각되었다.

2)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감상영역 비교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감상영역을 비교하면 <표-3>와 같다.

<표-3>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감상 영역 비교

	제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10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성격과 구성 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는다.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을 이해하여 듣는다. *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에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을 한다. * 다양한 악곡의 연주 형태와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는다.(양상블) * 잡가, 창극, 뮤지컬, 다성 음악 등 성악곡과 실내악곡, 무용곡, 창작 국악곡 등의 기악곡을 듣는다.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는다. *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한다(음악과 민족, 여러 양식의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곡의 내용과 시대적,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며 감상하기 * 여러 문화권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 탐색하기

감상활동은 음악 교육의 모든 세부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포괄적인 활동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리머의 심미적 교육철학이 반영되어 감상을 많이 강조하였다. 악곡의 성격과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며 듣기, 다양

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형식을 이해하며 듣기,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에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을 하기,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기는 7학년부터 계속적으로 제시된 목표이다. 다양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의 조화를 이해하여 듣기에서는 특히 민속악기와의 조화를 이해하여 듣기를 강조하였으며, 앙상블의 연주 형태와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의 관계를 이해하며 듣는 목표가 10학년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잡가, 창극, 뮤지컬, 다성 음악 등 성악곡과 실내악곡, 무용곡, 창작 국악곡 등의 기악곡 감상과 음악과 민족, 여러 양식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10학년에 제시된 목표이다. 감상영역을 중요시하는 만큼 세부적으로 많은 목표가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감상활동이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와의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목표를 제시함을 알 수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감상영역의 요소 또한 대폭 축소되었다. 악곡의 내용과 시대적,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며 감상하기는 감상하는 활동에 있어서 작품의 시대적, 지역적 배경을 이해하고 악곡의 내용이 역사와 문화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이다. 여러 문화권의 음악을 비교하며 감상하기는 세계 여러 나라와 여러 양식의 음악을 통해 세계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엘리엇은 각각의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지니고 있는 음악들은 서로 간에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따라서 어떤 음악이 다른 음악보다 더 가치 있다거나 중요하다라는 결론도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⁴⁶⁾ 이러한 다문화주의가 교육과정에 반영된 예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 탐색하기의 목표는 개정 교육과정에 와서 많이 강조된 개념이다. 이전까지의 음악만의 독자성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과목과의 통합적 접근을 이루려는 시도로 보인다.

3) 2007 음악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개정방향과 중점

21세기 현대 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교류 및 소통이 급증함에 따라 지식과 정보가 사회의 핵심적인 자원이 되었다. 이러한 지식 정보화

46) 권덕원 외(外) 3명 2008 “음악교육의 기초 개정판” p.81

사회에 발맞추어 학교 교육은 학습자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에 근거한 구성주의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구성주의 관점에 맞추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적성, 관심, 흥미, 진로를 고려하여 일정 범위의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학생 중심, 수요자 중심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는 11학년에서 1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 중 음악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으로서, 음악과목에 대한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음악에 흥미나 소식이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의 불균형 이수 문제를 해결하고 인성 및 교양 교육의 강화와 학생의 선택권 강화, 단위 학교 자율권 확대 등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심미적 음악 교육 철학과 더불어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음악하기(musicing)에 의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음악 행위의 활동과 그 활동을 통해 음악과 관련된 여러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2007 개정 음악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며, 음악의 다양한 가치와 역할을 강조한다. 교육의 환경 개선을 전제로 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하였으며,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폭넓게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음악 교육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방향을 두고 있다.

4.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감상 영역 내용 분석

가. 고등학교 음악 감상 교육의 학습 목표와 내용

학생들이 음악교과 수업에서 악기 연주,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만드는 것을 하고 다양한 음악활동의 기회를 통하여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적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 중에서 음악을 듣는 활동은 음악을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활동인 동시에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다. 다양한 소리를 듣고, 탐구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통하여 음악적 감수성을 길러야 하며, 이 모든 능력은 학교에서 강조되어야 할 기초적인 음악 활

동이다.

음악을 보다 표현력 있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작곡이나 즉흥 연주를 할 때에도 만든 음악을 소리로 바꾸어 비관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음악을 듣는 것은 다른 음악 활동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계속 같이 행해야 하는 활동이다. 이렇듯 중요한 감상활동의 교육적 성취를 위하여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의 음악 감상을 통하여 음악성의 창의성을 기른다.’라는 감상활동의 목표를 세우고, 그러한 목표의 실천을 위하여 고등학교 감상영역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4>

<표-4>고등학교 감상활동 영역의 학습 목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감상영역 목표		
감 상	1	악곡의 성격과 구성 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는다.
	2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을 이해하여 듣는다.
	3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에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을 한다.
	4	다양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의 조화를 이해하여 듣는다.
	5	다양한 악곡의 연주 형태와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는다.
	6	잡가, 창극, 뮤지컬, 다성 음악 등 성악곡과 실내악곡, 무용곡, 창작 국악곡 등의 기악곡을 듣는다.
	7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는다.
	8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한다.
	9	악곡의 내용과 시대적,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며 감상한다.
	10	여러 문화권의 음악을 비교하며 감상한다.
	11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을 탐색한다.

감상활동은 구성 요소, 악곡의 형식, 신체 표현하기, 목소리와 악기의 조화, 연주형태, 성악곡과 기악곡 듣기,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 음악을 듣고 평가하기, 바른 감상 태도 가지기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악곡의 성격과 구성 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며 듣기는 가사를 포함하여 악곡의 구성요소와 이들의 결합 방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악곡의 독특한 성격과의 관계를 이해하며 듣는 것으로, 중학교 전 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에 걸쳐 다루어지는 내용으로 다양한 악곡을 통하여 지도하도록 제시되었다.

다양한 문화와 시대의 악곡 형식들을 이해하고, 어느 특정 시대나 문화권, 국가의 악곡 형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좀 더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형식으로 확대하여 이해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악곡의 특징에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신체표현을 하기는 악곡이 지니고

있는 특징적인 분위기나 리듬, 가락의 형태, 음향의 특성 등에 따라 이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개성적으로 창의적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나.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영역별 분류

고등학교 3종 음악교과서의 감상영역의 비율을 비교하기 위해서 교과내용을 이해와 활동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이해영역은 각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는 이해부분과 학습 진도별 이론 부분으로 되어있으며, 활동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영역으로 되어있다.

가창은 가창 제재곡과 참고 곡을 가창 영역으로 구분하며, 기악은 기악이라 제시된 곡과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에 기악이 언급된 부분을 기악영역으로 구분 하였다. 창작영역은 교과서에 명시되어있는 창작부분과 ‘빈 마디 가락 넣기’나 ‘짧은 가락 짓기’ 등을 창작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감상은 교과서에 수록된 감상 단원과 음악사 및 작곡자에 관련된 감상활동 등을 감상영역에 포함시켰다. 이론 부분은 학습활동 부분의 화성, 리듬, 청음, 시창, 악전, 제재곡의 악곡들을 이론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이해와 활동영역(네가지)로 구분하여 각 출판사별로의 구성과 영역별의 분포도를 나타내어 보았다. <표1-4>

<표-5>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이해, 활동 영역 비율

출판사. 기호	A.도서출판 태성	B.(주) 박영사	C.(주) 금성출판사
감상영역	25	16	0
이해영역	40	34	39
활동영역	15	24	7

<표-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교과서 마다 영역별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영역 가운데 이해영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감상영역, 활동영역 순으로 차지하여 교과서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감상 영역 비교, 분석

1) 교과서별 감상곡의 빈도 수 조사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3종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감상곡의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의 빈도수를 조사하여 각 교과서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것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감상곡을 게재하였다.

(1) 서양음악 감상곡의 내용과 빈도수

시대	곡명	작곡가	교과서			계
			A	B	C	
바로크 이전	그레고리안성가		★			
	복된 성모 미사	조스캥	★			
	교황 마르첼로의 미사	팔레스트리		★		
	카논	요한 파헬벨		★		
	4곡	3명	2	2	0	4
바로크	바이올린 소나타	바흐	★			
	G선상의 아리아			★		
	가보트			★		
	나를올게버려두오	헨델		★		
	메시아			★		
	왕궁의 불꽃놀이			★		
	카르멘	비제	★			

	파반과 가야르드	버드	★			
	사계	비발디		★		
	9곡	5명	3	6	0	9
고전	그대를 사랑해	L.v. 베토벤	★			
	제9번 교향곡		★			
	제23번 열정			★		
	피가로의 결혼	모차르트	★			
	클라리넷 협주곡			★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		
	볼프강의 선율			★		
	교향곡 95번	하이든	★			
	독일 국가		★			
	놀람교향곡			★		
	호두까기인형	차이코프스키	★			
11곡	4명	6	5	0	11	
낭만	아름다운 오월에	슈만	★			
	위풍당당행진곡	엘가	★			
	사랑의 인사		★			
	첼로 협주곡 e단조 1악장		★			
	첼로 협주곡 e단조 3악장		★			
	음악에	슈베르트	★			
	마탄의 사수	베버		★		
	핑갈의 동국 서곡	멘델스존		★		

	1812년 서곡	차이코프스키		★		
	전주곡	리스트		★		
	환상교향곡	베를리오즈		★		
	나의조국 중 몰다우	스메타나		★		
	슬라브 춤곡	드보르자크		★		
	13곡	10명	6	7	0	13
고려	보허자		★		★	
	낙양춘		★		★	
	2곡		2	0	2	4
삼국	수제천				★	
	범패				★	
	2곡	0	0	0	2	2
조선 전, 후 기	여민락		★			
	수제천		★			
	판소리		★			
	시나위		★			
	병창		★			
	잡가		★			
	민요		★			
	종묘제례악		★			
	문묘제례악		★			
	영산회상		★			
	가곡		★			
	시조		★			
	김죽파류중 증모리			★		
	침향무	황병기		★		
	신쾌동류 중 자진모리			★		
	수리재	정대석		★		
	춘향가중 농부가			★		
	홍부가 중 박타령			★		
	춘향가 중 쑥대머리			★		
	적벽가 중			★		

	적벽대전					
	수궁가 중 토끼세상나오는대 목			★		
	적벽가 중 새타령				★	
	수십가				★	
	연음수십가				★	
	정선아리랑				★	
	연음아리랑				★	
	가야금산조				★	
	영산회상				★	
	춘향가중 적성가				★	
	홍보가 중 화초장				★	
	심청가 중 인당수				★	
	적벽가 중 공명 높은 재조				★	
	수궁가 중 용왕특별 우락				★	
	33곡	2명	12	9	12	33
근, 현 대	청성자진한잎		★			
	진도아리랑		★			
	창부타령		★			
	강강술래		★			
	연음수십가		★			
	경주꽃노래		★			
	해녀가		★			
	학도가		★			
	거국행		★			
	선구자	조두남	★			
카르미나부라나	오르프	★				

O mio babbincaro	G.푸치니	★		
투란도트		★		
붉은 노을	이영훈	★		
그대그리움	박경규	★		
친구	TOP,테디	★		
한국환상곡	안익태	★		
달에 홀린 피에로(병든달)		★		
바르샤마의 생존자	쾨베르크	★		
다섯 개의 오케스트라 작품들		★		
가사	윤이상	★		
그네			★	
프랑스국가	R.de 리슬	★		
미국국가	J.S 스미스	★		
영국국가		★		
자클린의 눈물	오펜바흐	★		
캐츠	웨버	★		
메모리		★		
맘마미아	앤더슨	★		
댄싱퀸		★		
레삼피리리		★		
모리화		★		
고추잠자리	아마다코우	★		
샬롬		★		
연가		★		
철새는 날아가고		★		
카츄샤		★		
아!목동아		★		
사랑의찬가	M.모노	★		
라트라비아타	베르디	★		

돌아오라소렌토로		★			
오솔레미오		★			
꽃의 속삭임		★			
We are the world		★			
아미타 1악장	이만방	★			
봄의 제전	스트라빈스키	★			
핀란드아	시벨리우스	★			
봉선화	홍난파		★		
동무생각	박태준		★		
고향생각			★		
춘향가 중 사랑가	현재명			★	
선구자	조두남		★		
봄이오면			★		
가고파	김동진		★		
아!가을인가	나운영		★		
아무도모르라고	임원식		★		
보리밭	윤용하		★		
명태			★		
떠나가는배	변훈		★		
4월의 노래			★		
그대있음에	김순애		★		
그리운 금강산	최영섭		★		
비목	장일남		★		
임이오시는지	김규환		★		
비가			★		
청산에살리라	김연준		★		
가고파후편	김동준		★		

목련화			★		
거문도 뱃노래	백경환		★		
화초장타령	전인평		★		
랩소디인블루	거슈윈		★		
재즈모음곡	쇼스타코비치		★		
웨스트사이드스토 리	번스타인		★		
카논	파헬렐		★		
네모의 꿈	유영석		★		
아웃오브아프리카			★		
아프리카의 여인중오낙원이여			★		
스윙걸즈			★		
칼림소름바			★		
룩산느의탱고			★		
관타나메라			★		
How High the moon			★		
What a wonderful world			★		
신밧놀이	원일		★		
독주곡 33번 바다	이성천		★		
우조 초수대엽			★		
피아노 산조	김국진		★		
첼로 산조			★		
let it be			★		
이현의 농			★		
미스터 장고			★		
pan o rama 중			★		

frontier					
기악곡집 소통			★		
산너머 남촌에는	김동현			★	
오!나의 태양	카푸아			★	
마리아마리				★	
청				★	
홍보전				★	
패왕별희				★	
추신구라				★	
달고나				★	
지하철 1호선				★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비트바카락			★	
What a wonderful world	썰,바이스			★	
풍선	김성호			★	
난알아요	서태지			★	
침밀밀	황하			★	
어두운 숙명				★	
내길위의 하늘				★	
제비의 파두				★	
이별의 발라드				★	
바빌론 강가에서				★	
여인이여 울지마요				★	
할 말이 너무 많아				★	
한데 어울려				★	

	장밋빛 인생				★	
	상젤리제				★	
	피노키오				★	
	나이도 어린데				★	
	눈물속에 피는 꽃				★	
	무지개 같은 나날들				★	
	그대있는 곳까지	J.C 칼데론			★	
	Beaty and the beast	일란멘켄			★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베르디			★	
	124곡	54명	46	46	32	124
계	165곡	76명	65	66	52	167

<표-6> 서양음악 감상곡의 작곡가 및 빈도수

<표-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A, B, C의 순서대로 각각 65곡, 66곡, 52곡으로 3종의 교과서에는 165곡의 감상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3종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수록된 감상곡은 보허자와 낙양춘 이외의 곡은 없음을 알 수 있다.

총 165곡 가운데 감상곡이 가장 많이 수록된 교과서는 66개의 곡을 수록하고 있는 B교과서이며 가장 적은 감상곡을 수록한 교과서는 C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수록된 교과서와 가장 적게 수록된 교과서의 차이가 7곡의 차이를 보임으로 각 교과서별로 감상곡의 수의차이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국 음악 감상곡의 내용과 빈도수

<표-7> 한국음악 감상곡의 작곡가 및 빈도수

시대	곡명	작곡가	교과서			계
			A	B	C	
삼국	수제천				★	
	범패				★	
	2곡	0	0	0	2	2
고려	보허자		★		★	
	낙양춘		★		★	
	2곡	0	2	0	2	4
조선 전기	여민락		★			
	수제천		★			
	판소리		★			
	시나위		★			
	병창		★			
	잡가		★			
	민요		★			
	종묘제례악		★			
	문묘제례악		★			
	영산회상		★		★	
	가곡		★			
	시조		★			
	우락				★	
13곡	0	12	0	2	14	
조선 후기	김죽파류 중 중모리			★		
	침향무	황병기		★		
	신쾌동류 중 자진모리			★		
	수리재	정대석		★		
	춘향가 중 농부가			★		
	흥부가 중 박타령			★		
	춘향가 중			★		

	쑥대머리					
	적벽가 중 적벽대전		★			
	심청가 중 범피중류		★			
	수궁가 중 토끼세상나오 는 대목		★			
	적벽가 중 새타령		★			
	수심가			★		
	윽음 수심가			★		
	정선아리랑			★		
	윽음 아리랑			★		
	가야금 산조			★		
	춘향가 중 적성가			★		
	홍보가 중 화초장			★		
	심청가 중 인당수			★		
	적벽가 중 공명 높은 재조			★		
	수궁가 중 용왕특별			★		
	21곡	2명	0	11	10	21
근.현 대	청성자진한잎		★			
	진도아리랑		★			
	창부타령		★			
	강강술래		★			
	윽음수심가		★			
	경주꽃노래		★			
	해녀가		★			

	학도가		★			
	거국행		★			
	신밧놀이	월일		★		
	독주곡 33번 바다	이성천		★		
	우조 초수대엽			★		
	피아노 산조	김국진		★		
	첼로 산조			★		
	이현의 농			★		
	미스터 장고			★		
	pan o rama 중 frontier			★		
	기악곡집 소통			★		
	춘향가 중 사랑가	현재명			★	
	칭				★	
	홍보전				★	
	21곡	4명	9	9	3	21
계	59곡	6명	23	20	19	62

<표-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과서 A, B, C의 순서대로 각각 23곡, 20곡, 19곡으로 3종 교과서는 62곡의 한국음악 감상곡이 수록되어 있다. 감상곡이 가장 많이 수록된 교과서에는 A교과서에 23곡이 수록되어 있는 반면에 C교과서에는 19곡으로 가장 적게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이한 점은 3종 교과서에 보허자, 낙양춘, 영산회상을 제외한 공통된 감상곡은 없었다. 보허자와 낙양춘, 그리고 영산회상은 A교과서와 C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각 교과서별 감상 영역 분류. 분석

각 교과서에 수록된 감상곡을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으로 분류해서 교과서 마다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서양음악의 시대적 분류는 보편적인 분류법을

사용하여 바로크이전 시대(450년~1600년), 바로크시대(1600년~1750년), 고전주의(1750년~1810년), 낭만주의(1810년~1910년), 근,현대 시대(19세기 말~)로 5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음악은 서양음악처럼 음악적 스타일이 변하는 시기에 따라 음악적 시기를 나누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현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류법인 향유계층과 기능에 따른 분류법인 정악과 민속악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다시 정악은 의식에 사용되는 의식음악으로 구분하고 최근에 작곡된 창작음악으로 분류하여 의식음악, 정악, 민속악, 창작음악의 4가지로 분류 하였다.

(1) 태성

태성 교과서에서는 감상, 이해, 활동영역을 수록하였다. 이것을 분석하면 다음 <표-8>과 같다.

<표-8> 고등학교 교과서 감상곡 분석 - 태성 A

서양음악			한국음악		
분류	곡명	작곡가	분류	곡명	작곡가
바로크이전	복된 성모 미사	조스캥 데 프레	의식 음악	보허자	
				낙양춘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바로크	바이올린소나타	바흐	정악	영산회상	
고전	그대를사랑해	베토벤		수제천	
	제9번 교향곡			가곡	
	교향곡 95번 독일국가	하이든		시조	
낭만	피가로의 결혼	모차르트	민속 악	판소리	
	볼프강의 선율			시나위	
낭만	음악에	슈베르트	민속 악	병창	
	아름다운	슈만		잡가	학도가

근,현대	오월에		창작 국악	기악곡	청성자 진한잎	
	카르멘	비제				거국행
	호두까기인형	차이코프스키				진도아 리랑
	라트라비아타	베르디				창부타 령
	캐츠	웨버				강강술 래
	메모리					엮음수 심가
	맘마미아	앤더슨				경주꽃 노래
	댄싱퀸	B.엘베스				해녀가
	자클린의 눈물	오펜바흐				
	선구자	조두남				
	We are the world					
	영국국가					
	프랑스국가	R.데리슬				
	미국국가	J.S.스미스				
	한국환상곡	안익태				
	핀란드아 가사	시벨리우스 윤이상				
	레삼피리리 모리화					
	고추잠자리	아마다코우				
	살롬 연가					
철새는날아가고 카츄샤						
아!목동아						

붉은노을	이영훈			
사랑의 찬가	M.모노			
돌아오라소렌 토로				
오 솔레미오				
꽃의 속삭임				
달에홀린 피에로(병든달)	쾨베르 크			
바르샤바의 생존자				
다섯 개의 오케스트라 작품들				
아미타제1악장	이만방			
그대그리움	박경규			
친구	Top, 테디			
봄의 제전	스트라 빈스키			
카르미나부라 나	오르프			
love actually				
그대있는 곳까지	J.C 칼데론			
투란도트	푸치니			
사랑의 인사	엘가			
위풍당당행진 곡				
첼로협주곡 e단조 1악장				

첼로 협주곡 e단조 3악장					
O mio babbino caro	푸치니				
파반과 가야르드	버드				

<표-8>에서 분석한 결과 서양음악은 56곡, 한국음악은 21곡으로 감상곡이 총 77곡이 수록되어 있다.

서양음악은 바로크 시대 이전에 1곡, 바로크시대 1곡, 고전시대 6곡, 낭만시대 4곡, 근,현대 시대 44곡이 수록되었고, 한국음악은 의식음악 4곡, 정악 5곡, 민속악 11곡, 창작국악 1곡이 수록되어 있다. 서양음악 감상곡이 한국음악 감상곡보다 35곡이 더 많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박영사

박영사 교과서 역시 감상, 이해, 활동영역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박영사 교과서를 분석한 <표-9>은 다음과 같다.

<표-9> 고등학교 교과서 감상곡 분석 - 박영사 B

서양음악			한국음악		
분류	곡명	작곡가	분류	곡명	작곡가
바로크 이전	교황 마르첼로의 미사	팔레스트리나	의식음악		
	카논	요한 파헬벨	정악		
바로크	G선상의 아리아	바흐	민속악	김죽파류 중 중모리	
	가보트			침향무	황병기

	사계	비발디		신쾌동류 중 자진모리	
	나를 올게 내버려두오	헨델		수리재	정대석
	메시아			춘향가 중 농부가	
	왕궁의 불꽃놀이			흥부가 중 박타령	
고전	클라리넷 협주곡		모차르트		춘향가 중 쑥대머리
	아이네클라 이네나흐트 무지크			적벽가 중 적벽대전	
	제23번 열정	베토벤		심청가 중 범피중류	
	놀람교향곡	하이든		수궁가 중 토끼세상나오는 대목	
낭만	마탄의 사수	베버	창작국악	독주곡 33번 바다	이성천
	핑갈의 동굴 서곡	멘델스존		우조 초수대업	
	1812년 서곡	차이코프 스키		피아노 산조	김국진
	전주곡	리스트		첼로 산조	
	환상교향곡	베를리오 즈		기타 산조	김수철
	나의조국 중 몰다우	스메타나		25현가야금 let it be	
	슬라브 춤곡	드보르자 크		이현의 농	
근,현 대	봉선화	홍난파		미스터 장고	
	동무생각	박태준		pan o rama중 frontier	
	고향생각	현제명		기악곡집 소통	
	선구자	조두남			
	새타령				

봄이오면	김동진			
가고파				
아!가을인가	나운영			
아무도 모르라고	임원식			
그네	윤이상			
보리밭	윤용하			
명태	변훈			
떠나가는배				
4월의 노래	김순애			
그대있음에				
그리운 금강산	최영섭			
비목	장일남			
임이오시는 지	김규환			
비가	김연준			
청산에 살리라				
가고파 후편	김동준			
목련화				
거문도 뱃노래	백경환			
화초장타령	전인평			
랩소디 인 블로	거슈윈			
재즈모음곡	쇼스타코 비치			
웨스트사이 드스토리	번스타인			
카논	파헬렐			
Beaty and the beast	알란멘젠			
네모의 꿈	유영석			
아웃오브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여인 중				

오낙원이여				
스윙걸즈				
칼립소룸바				
록산느의 탱고				
관타나메라				
How High the man				
What a wonderful world				
목신의 오후	드뷔시			
볼레로	라벨			

<표8>를 분석한 결과 서양음악은 59곡, 한국음악은 20곡으로 감상곡이 총 79곡이 수록되어 있다. 서양음악의 바로크시대 이전 2곡, 바로크 시대 6곡, 고전시대 4곡, 낭만시대 7곡 근,현대 시대 40곡이며, 한국음악은 민속악 10곡, 창작국악 10곡이었다.

이 교과서에서도 서양음악이 39곡 더 많이 수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3) 금성

금성 교과서를 분석한 감상영역은 <표-10>와 같다.

<표-10> 고등학교 교과서 감상곡 분석 - 금성 C

서양음악			한국음악		
분류	곡명	작곡가	분류	곡명	작곡가
바로크 이전			의식음악	낙양춘	
바로크				보허자	
고전			정악	수제천	

낭만				범패	
	산너머 남촌에는	김동현		우락	
근,현대	오!나의 태양	카푸아	민속악	영산회상	
	마리아 마리			적벽가 중 새타령	
	리콜레토 중 여자의 마음	베르디		수심가	
	패왕별희			썬음 수심가	
	추신구라			정선아리랑	
	달고나			썬음아리랑	
	지하철1호선			가야금 산조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비트바카 락		춘향가 중 적성가	
	What a wonderful world	썰, 바이스		홍보가 중 화초장	
	풍선	김성호		심청가 중 인당수	
	난알아요	서태지	적벽가 중 공명높은 재조		
	첨밀밀	황하	수궁가 중 용왕특별 춘향가 중 사랑가	현재명	
	어두운 숙명		칭		
	내길위의 하늘		창작국 악	홍보전	
	제비의 과두				
	이별의 발라드				
	바빌론 강가에서				
	여인이여 울지마요				

할 말이 너무 많아				
한데 어울려				
장밋빛 인생				
상젤리제				
피노키오				
나이도 어린데				
눈물 속에 피는 꽃				
무지개 같은 나날들				

<표-10>를 분석한 결과 서양음악은 27곡, 한국음악은 20곡으로 감상곡이 총 47곡이 수록되어 있다. 서양음악의 근현대시대 27곡이 수록되어 있고, 한국음악은 의식음악 2곡, 정악 4곡, 민속악 11곡, 창작국악 3곡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서양음악은 근,현대 시대의 음악만을 감상곡으로 수록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었고, 한국음악은 서양음악에 비해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감상영역으로 포함시켜 놓았다는 점 역시 이 교과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의 감상곡의 빈도수

<표-11>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의 감상곡의 빈도수

교과서	A	B	C	합계.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서양음악	56	59	27	142
한국음악	21	20	20	61
계	77	79	47	203

<표-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종 교과서 모두 서양음악의 감상곡 수가 한국음악 감상곡의 수보다 많았고, 서양음악 감상곡이 가장 많이 수록된 교과서는 B교과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음악 감상곡을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는 A교과서로 나타났다.

5) 감상 영역 비교 .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3종 음악교과서 감상영역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내용은 고등학교 3종 교과서별 감상곡의 빈도 수 조사와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의 감상곡의 빈도수의 순으로 연구하였다.

3종 교과서별 감상곡의 빈도 수 조사에서는 서양음악 감상곡은 142곡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3종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곡은 극히 일부 뿐이었다. 그만큼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 공통적인 필수 악곡이 필요한 것이다. 어떤 교재를 택하더라도 필수적인 악곡을 기본으로 수록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것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균형적으로 감상곡 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된다.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의 감상곡의 빈도수 조사에서는 예전에 서양음악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에 비해 한국음악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한국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증가 보다는 질적으로 한국음악을 더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보고, 들으며, 직접 손쉽게 연주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수업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인 감상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대별 감상곡의 비교, 분석에서 서양음악 감상곡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다양한 시대의 곡들이 수록된 것으로 보여 졌다. 낭만시대의 곡과 근,현대곡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바로크 이전의 곡들은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C교과서에서는 다른 시대의 음악은 전혀 없고 근,현대 시대의 감상곡만 수록되어 교과서별로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렇듯 교과서간의 편차가 심할수록 어느 교과서를 배우느냐에 따라 학생들에게 있어서 개인차를 불러일으키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기준이 교과서를 편찬하는데 있어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음악 감상곡의 악곡분류와 비율에서는 총 61곡의 한국음악 감상곡이 수록되어 있었다. 3종의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곡은 서양음악 감상곡과 마찬가지로 극히 적은 수의 곡이 수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한국음악 역시 전체 교과서에서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한국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교과서 전체에서 양적으로는 많아 졌지만 질적으로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악곡의 종류를 살펴보면 서양음악에서는 관현악곡이 가장 많이 편찬되어 있었고 경극이나 가부키 음악은 1번씩 편찬되어 있었다. 한국음악에서는 민요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판소리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역시, 궁중음악, 가곡, 잡가, 제례악, 산조, 신조는 2번씩 편찬되어 악곡 종류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감상곡의 수는 203곡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작곡가나 종류, 악곡들이 수록되어 있지 못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주로 근,현대 시대의 곡들로 편중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및 제언

결론

지금까지 현행 고등학교 3종 음악교과서의 감상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결과 감상영역에 있어서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을 위해 다양한 곡을 선정하여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음 또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 가운데도 실제 수업과정 중에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연구목적에서도 밝힌 것처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잠재된 학생의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하고 수업을 통해 음악 감상 곡들의 깊은 인간적 이해를 통해 삶을 관조적으로 보며 즐길 줄 아는 능력을 길러줘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음악교과서는 이러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교과서에 따라 감상영역의 빈도의 차가 크며 필수적인 감상부분은 각 교과서 별로 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과서를 편찬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곡을 선정하게 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각 교과서에서의 균형적인 분포를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시대별, 작곡가별, 장르별, 연주 형태별의 감상 곡들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음악에 대한 편견과 이해를 학생들은 더 넓힐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음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다양한 한국음악의 종류를 수록하여야 한다. 학생시절 누구나 배웠을 한국음악 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한국음악이 또 다르고 낯설게 다가오는 이유 중 하나가 음악교과서에서 접했던 한국음악 때문일 것이다.

넷째, 급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다양한 음악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 MP 3, 휴대폰 등을 통해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고등학교에서 주어지는 음악시간에 교과서의 제재곡을 감상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음악 감상에 쉽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음악 감상 방법에 대한 지침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음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해하고 알아가는 학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의 특징을 살려 감상 수업은 음악학습의 기초가 되기도 하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음악은 삶의 한 부분이다. 감상이라는 것은 더더욱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한다. 음악 수업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과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의 지침과 함께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주는 것은 교사의 몫이라 생각한다. 또한 체계적이며 균형을 이룬 질 높은 교과서의 편찬 역시 교사의 수업하는 방법과 태도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음악 감상의 이러한 여러 중요한 점들을 고려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교사는 가르치며 학생은 배울 수 있는 질 높은 음악교과서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3종 교과서의 정확한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하여 더 발전되고 체계적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를 편찬하는데 일조되길 바란다.

1.참고문헌

I. 단행본(單行本)

- 교육부.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 교육부, 2001
- 권덕원. 외 <음악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2005)
- 김세한. “발달 심리학”
- 김용래. “교육 심리
- 김을곤. <교양인을 위한 음악해설과 감상기법>
서울 : 일신서적출판사, 2004
- 김체한. “발달 심리학” (서울 : 학문사 1990)
- 민경훈. 외, <음악교육학 총론> (학지사, 2010)
- 민경훈. <현대음악 학습방법연구> (음악이론연구 제4집, 1999)
- 민영순. “교육 심리학” (서울 : 교육출판사, 1986)
- 방금주. 김용희 <음악 창작 아카데미> (학문사, 2000)
- 서한범. <국악통론> 서울 : 태림출판사, 2005
- 석문주. <음악교육연구모임 교실에서의 음악 감상>
서울 : 교육과학사, 1999
- 석문주. <교실에서의 음악감상> (교육과학사 1999)
- 석문주. 외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학지사 2010)
- 석문주. 외 전개서(학지사 2010)
- 손대룡. <한국음악개론> 서울 : 동진음악출판사, 1996
- 유덕희. “음악교수법” (서울 : 정음사 1976)
- 유덕희. “음악교육학 개론”
- 유덕희. “음악 교육학 개론” (서울 : 학문사. 1981)
- 유덕희. “음악교육론” (서울 : 개문사.1983)
- 유덕희. “음악 감상 입문” (서울 : 개문사, 1983)
- 유덕희. “음악교수법” (서울 : 정음사. 1976)
- 유신. 음악감상론 (서울 : 삼호 출판사,1998)

- “음악대사전”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이성삼. <악곡의 감상관점 제7회 음악교육학술 세미나 및 연수회>
한국음악학회, 1996
- 이연경. <감상능력 육성을 위한 음악과 학습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15집, 1996)
- 이용일. 음악교육학개설, (서울 : 현대출판사, 1992)
- 이홍렬. “음악감상론” (서울 : 정음사 1976)
-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0
-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2
- 이홍수. <음악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음악여행>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4
- 이홍수. <현대음악 작품의 교재화 방안> (음악교육연구 제 17집, 1998)
-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출판사 1990)
-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음악대사전”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 Charles. Leonahard, & House, Rpbert W. 안미자역 <Foundation and
Principles of Music Education: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 Reimer, Benett. “음악 교육 철학” 신도웅 역.
(서울 : 세광 음악 출판사, 1987)

II. 계속간행물(繼續刊行物)

- 이연경. <감상능력 육성을 위한 음악과 학습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15집, 1996)
- 이연경. “감상능력 육성을 위한 음악과 학습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 15집 (서울 : 한국음악교육협회, 1996)
- 이홍수. <현대음악 작품의 교재화 방안> (음악교육연구 제 17집, 1998)

Ⅲ. 학위논문(學位論文)

- 김병주. “음악 감상을 통한 음악적 태도 및 창의성 개발에 관한 실험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1995
- 안기옥. “베에토벤 음악을 통한 음악 감상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1997